

A. 바리새인이 초점

- |  |  |
|--|--|
| <p>마태 22-23 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1:45 포도원 비유 이후 반응=&gt; 대제사장과 <u>바리새인</u></li> <li>○ 혼인잔치 비유(22:1-14)</li> <li>○ 22:15 바리새인이 주동(바리새인과 헤롯당원)</li> <li>○ 바리새인 중 한 사람, 율법사(22:34-35, εἷς ἐξ αὐτῶν [νομικὸς])의 질문</li> <li>○ 바리새인—그리스도에 관한 이해(22:41)</li> <li>○ x</li> <li>○ 외식하는 바리새인 (23:1-39)</li> </ul> | <p>마가 12 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막 12:12 포도원 비유 이후 반응=&gt; “저희가”(=&gt;막 11:27, 대제사장, 서기관, 장로)</li> <li>○ x</li> <li>○ 막 12:13 “저희가” 주동(바리새인, 헤롯당원)</li> <li>○ 서기관 중 한 사람(12:28)의 질문</li> <li>○ 칭찬(12:34)</li> <li>○ 서기관—그리스도에 관한 이해(12:35)</li> <li>○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</li> <li>○ x</li> </ul> |
|--|--|
- 바리새인 singled out! => 마가복음의 서기관 이야기 삭제. 아울러 (일말의) 칭찬의 소리도 사라짐.
  - 마태복음 23:2 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꾸지람이지만, 이어지는 일련의 재앙신약(woe oracles)에서 초점은 역시 바리새인.
    - 랍비는 바리새파의 위대한 선생을 일컫는 말. (“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”—23:8);
    - “소경된 바리새인”(23:26); 반면 서기관은 ‘선지자’, ‘지혜있는 자’와 함께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으나, 핍박받은 사람들 중에 속함(23:34)=> 이들을 핍박한 이들의 호칭이 ‘뱀들아, 독사의 자식들아’로 바뀜 (Q. 누굴까?)

B. 왜 바리새인인가?

- 새로운 지배체제 도래. 유대전쟁(66-70) 후 예루살렘성전이 사라지면서, 성전중심의 지배체제에 변화. 유대종파 중 바리새파와 그리스도파(?)만 생존—Pharisaic Judaism and Christian Judaism
- 바리새인에 대한 비평은 곧 새로운 지배체제, 지도자에 대한 평가=> 로마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정치적 입지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정체성형성에 주력 (이후 그리스도파에서는 신약성서를, 바리새파에서는 미쉬나—랍비들의 성서해석모음—를 당시 [구약]성서에 첨가)

C. 교훈: 신앙생활의 일관성

- 정체성: 바리새인의 가르침에는 문제가 없다=> 그 의미는?
  - 모세의 자리=> 가르침(Torah). 정체성에 대해
  - 마 16:12 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(διδασχί)이 문제
- 화 있을진저(Woe oracles): 23:13, 15, 16, 23, 25, 27, 29
  - 머리말(23:1-12): 문제점=> 행함이 없는 믿음
  - 이사야 5 과의 연계성 (5:8, 11, 18, 20, 21, 22): 1) 가옥가 가옥, 전토와 전토=>전부 내꺼; 2) 향연=> 백성들의 고향; 3)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음; 4) 재판의 공정성 상실; 5) 자랑/교만(자뻑); 6) 포도주/독주=>포도원비유 (고위관리, 지도층만의 권리=> 뇌물)
    - 포도원 비유와의 상관관계 및 변화=> 마태 21 장 이후 바리새인이 중점적으로 등장
    - 지도체제=> 기원전 8 세기와 서기 1 세기 팔레스타인 농경사회의 상관성
- 상대방 흠집내기에서 자성의 목소리로.
  - “화 있을진저”=> Conventional, stereotypical polemical languages, not a factual description
  - “The name calling is not intended to reform the other group. It is for internal consumption, affirming a group’s own identity” (Carter, *Matthew and the Margin*, 451).
  - 근본적인 질문: (모세의 자리에서) “저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고 지키되,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” 왜? “저희는 말만하고 행치 아니하니라”(23:3). Q. 그러면 우리는?
  - 지도자? 랍비/선생에서 그리스도로 (많은 그리스도 중 예수 그리스도로). 예수의 지도자로서의 가르침: “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”(23:10 => 20:25-28, “인자도...”).

생각해 보기

1. 왜 성서해석—모세의 자리가 뜻하는 바—에 관해서 비판/비평이 없을까? 이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? (성서해석의 자유? => 무엇보다 초점은 그 생각/뜻/말하는 바대로 행동하는가/사는가?).
2. 내가 취할 행동은? 1) 가르치는 자로서; 2) 배우는 자로서